

광주아트페스티벌

# 낭만과 예술, 사랑의 가을 추억 만들기

깊어가는 가을, 광주전변 일원에서 신명난 예술난장이 펼쳐진다.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주최하는 '2011 광주예총페스티벌'이 다음달 7~9일 광주교 및 광주전 둔치(광주공원 앞 천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광주예총페스티벌은 '가을 금빛, 예술의 물결을 만나'라는 주제로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영화 등 예총 산하 10개 협회 회원들이 참여한다. 미술협회는 갤러리라는 공간을 탈피해 대안적 공간인 야외(천변)에서 작품을 플래카드 형태로 소개하는 미술퍼포먼스 '배너 Arts 전'을 진행하며 문인협회는 문학작품과 그림이 어우러진 시화전과 시낭송회 '시를 보다-음유하다', 광주전 옛이야기를 준비했다. 시기별로 유행했던 영화를 선정, 영화의 흐름을 알 수 있게한 추억의 포스터전 '그때 그 영화'도 눈여겨 볼만한 전시다.



지난해 열린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한국무용 공연 모습.

행사기간 광주전 둔치에서는 대형스크린을 설치해 영화를 상영하는 심야강변극장도 운영된다. 청소년과 시민, 예술가 등이 함께 천변의 쓰레기를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퍼블릭 예술 프로젝트 'We Go

국화' 등 한국춤 공연도 선보인다. 가을밤 깊은 울림을 주는 시낭송과 라틴댄스팀의 무대도 준비돼 있다. 8일에는 열린음악회 형식의 공연이 진행된다. '물결 위의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영화음악 시리즈

저를게하는 무대가 준비됐다. 김상배, 박진도, 배소연, 진국이 등 가수들이 신나는 가요를 들려주며 전국 트롯트 신인가요제 본선도 치러진다. 매일 오후 2~5시 열리는 '대추여울난장'에서는 예술가페 '물결을 타고 가는 영화음악, 그리고 시'가 열리고 물과 여인을 주제로 한 '시간을 멈추다' 사진촬영대회(8일)와 시민백일장(9일)도 개최된다.

또 열정프린지 무대로 평안가원제, 마당놀이 '토생외전', 그룹사운드 공연, 비보이 공연, 가요대행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그밖에 포토존, 풍선아트, 캐리커처 그리기, 민속놀이, 시민배우를 찾아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국악·무용 등 광주예총 산하 10개 협회 참여 마당 포토존·풍선아트·민속놀이 등 부대행사도 마련

Together'도 진행할 예정이다. 3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광주교 특설무대에서는 예술의 다리, 사랑의 다리, 낭만의 다리 세 가지 컨셉으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첫날 7일에는 가야금 산조, 퓨전 국악, 민요메들리 등 국악 콘서트가 펼쳐지며, 한국무용단의 '매난국악'

가 연주되고 시민 동요제 본선진출자와 협연도 펼친다.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최신 창작 뮤지컬까지 하이 라이트만 골라 보여주는 '뮤지컬 하이라이트'가 무대에 오르고 오리지널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을 극화한 번사극 '검사와 여선생'도 공연된다. 9일에는 흥겨운 대중음악에 빠

## 문화정책 감시할 시민 문화지기 양성

광주문화도시협,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강좌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김상윤)는 다음달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광주YMCA 소강당에서 5주과정으로 '문화지기단' 양성을 위한 제1기 시민강좌를 강좌'를 연다. 이번 시민강좌는 광주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공감대 형성의 가교역할을 하는 시민 참여형 문화지기단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강좌 수료생은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하게되며 광주시 주요 문화정책과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등 문화도시의 저변을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김하림 조선대 교수, 김상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이무용 전남대학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수강을 원하는 이는 다음달 3일까지 전화나 팩스,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명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062-234-272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1980년대 민주화운동 기록 한눈에

문민정사 회보 '무등' 통권으로... 내달 1일 출간범회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과 민중불교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광주 문민정사(주지 법선 스님)는 1984년(불기 2528년)부터 발간돼 1987년까지 31호를 낸 '무등'(無等)을 통권으로 묶어 냈다. 지선 스님(전 백양사 주지)을 중심으로 결성한 무등민중문화연구회 회보로 창간된 '무등'은 민중불교와 실천불교를 주제로 파격적인 글을 실어 민주화 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됐다. 이번 출간된 '무등' 통권은 '역사와 민족과 함께한 불교 민주화

운동의 기록'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과정과 지역 불교계의 상황을 기록한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민정사에서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문민정사에서 출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기념식 후에는 지선 스님의 법문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062-222-220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다음달 7~9일 광주전변 일원



시 낭송 행사

## 외국인 눈으로 본 근대 한국 풍경

롯데갤러리, 10월 17일까지 전시

롯데갤러리는 오는 10월 17일까지 '1900년대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 풍경'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19세기 후반부터 1950년대에 한국을 방문, 격변기 한국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외국인 작가 엘리자베스 키스, 폴 자라레, 윌리

안 메이 밀러, 윌리 세일러의 관화 작품을 선보인다. 엘리자베스 키스 한국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외국에 최초로 선보인 작가며, 나라를 잃은 조선인의 삶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또 폴 자라레는 일본에서 거주하면

서 한국인의 딸을 양녀로 삼을 정도로 한국에 호감이 컸던 작가이며, 인물묘사가 돋보인 작품을 전시한다. 이 밖에 윌리안 메이 밀러는 1919년 한국을 찾아 금강산 마하연, 대동강의 황포돛배, 한강의 황포돛배 등을 작품으로 남겼고 윌리 세일러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의 고단한 삶을 형상화했다. 문의 062-221-180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윌리 세일러 작 '황정'

##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작품공모

대상·최우수 수상자, 내년 시립미술관서 개인전

11월 30일까지 접수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와 주관하는 '제23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에 참여한 전국 예술인들과 기성 미술인의 작품을 공모한다. 출품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미협 광주지회나 전국 12곳의 홈페이지(www.gwangjuart.org)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심사를 통해 대상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이상 각 1명), 우수상 100만원(2명)의 상금을 주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는 내년 광주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개인 초대전을 열어준다. 입상자 발표는 오는 12월 14일이며, 이일부터 12월 18일까지 광주비엔날레에서 입상작을 전시한다. 문의 062-222-8053.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홍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 유·스퀘어사우나

# 24시

★ 각종 편의시설 : 수면실(침대)·피부샵(스포츠마사지)·인터넷·안마기·이용원·세신·세화

■ 위치: 유·스퀘어 광주종합터미널 2층 아이엘리시아 옆

■ 주차안내: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 문의전화: 062) 352-4455